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 지구화의 맥락에서

심영희*

국문요약

이 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를 지구화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보려는 것으로서 지구화의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이라는 의식/담론의 두 수준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자료로는 공식통계, 서베이 자료, 상담자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와 관련해서는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 상담자료, 신문기사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이시절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기사자료는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와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의 추세, 특히 후자는 상대적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두 축으로 해서 제시한 유형을 중심으로 최근 20년간을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김부남 사건, 김보는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부각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수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 아산 마을주인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수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해진 예술양 남치 성폭력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와 1990년 후반까지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간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 또는 변화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지구화의 두 측면 즉 한편으로 경제위기와 포르노의 확산과 같은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인권 담론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990년대 말에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고 2000년대 초와 후반에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지구화로 인한 포르노의 범람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인권담론의 확산으로 인한 성찰성의 증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 주제어 : 어린이 성폭력, 집단성폭력,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제위기, 포르노, 인권담론, 성찰성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서론

1. 문제제기

이 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를 지구화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90년대 초에 어린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이 빈발했으며, 특히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 어린이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어린이의 성폭력의 양, 유형, 발생맥락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20년간 어린이 성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필자의 주장은 지난 20년간의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는 성폭력 전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구화의 맥락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가 지구화의 맥락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한 우리사회가 지구화의 맥락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구화는 경제적 측면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로, 인권담론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를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어린이 성폭력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변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성폭력은 정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 성폭력의 양은 이전과 같은데, 단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신고하기 때문에 증가한 듯이 보일 뿐인 것인가?

둘째,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만약 어린이 성폭력이 정말 증가했거나 신고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유형의 어린이 성폭력은 어떤 것들인가? 또한 앞으로 미래에 증가하거나 신고가 많아지리라 기대되는 유형의 어린이 성폭력은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의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난 것인가? 어린이 성폭력

이 전보다 증가하고 있거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왜 그러한가? 이것은 사회가 보다 위험해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성폭력에 보다 민감해졌기 때문인가? 이것은 지구화나 위험사회의 도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다. 먼저,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간단히 논의하고, 둘째, 어린이 성폭력의 양적 변화추세를 각종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의 변화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기별 변화의 윤곽을 그려보겠다. 넷째,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과 맥락에 대해 논의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지구화의 맥락에 따라 어린이 성폭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다. 다섯째,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지구화에 대한 성찰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지으려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초점은 성폭력의 양과 유형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구화의 두 측면, 즉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이라는 지구화의 담론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어진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등 공식통계자료, 서베이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자료,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검색서비스 KINDS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최근 20년이다. 최근 20년으로 잡은 이유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세계화가 진행된 것이 대략 1990년대 부터라고 보기 때문이고, 둘째는 KINDS 뉴스검색서비스가 199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II.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먼저 어린이의 개념을 보면 보통 14-19세는 청소년, 7-13세는 어린이 또는 아동, 7세 미만은 유아로 부른다. 따라서 어린이 성폭력은 7-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행한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하여 유형구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보다 넓은 개념인 어린이/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유형을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

법이 있다. 여기에서 피해의 유형에 따라 나누는 방식은 성폭력 일반의 유형과 비슷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겠다.

첫째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인데, 가해자를 성인으로 가정하고 피해자가 유아인가 어린이인가 청소년인가에 따라 유아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어린이/청소년간에 성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 유형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는 위의 피해자 중심 유형 분류를 보완하여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유형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언급한 성인에 의한 유아/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외에도 청소년에 의한 성인 성폭력, 청소년간 성폭력, 어린이간 성폭력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위의 논의를 표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을 구분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표 1>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아/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유형

가해자 피해자	성 인	어린이/청소년
성 인	유형 1 성인에 의한 성인 성폭력	유형 2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성인 성폭력
어린이/청소년	유형 3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 4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여기에서 유형 1은 성인에 의한 성인 성폭력으로서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2는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성인 성폭력으로서 1980년대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소년범죄 중 청소년에 의한 성인 성폭력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 3은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으로서 2000년대 초에 문제가 되었던 원조교제도 여기에 속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성인에 의한 어린이/유아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 4는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으로서 역시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이중 유형 3의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4의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Ⅲ.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

그럼 이런 어린이/청소년 성폭력들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추세는 어떠한가? 여기서는 공식통계, 서베이자료, 상담자료, 언론보도 자료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성폭력 범죄 전반의 추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추세를 살펴보자.

1. 성폭력 범죄 전반의 추세: 90년대 말 2000년대 말 증가

먼저 공식통계¹⁾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추이를 보자. 성폭력범죄를 전체범죄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전체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모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97년 1,588,613건에서 2004년 2,080,901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감소하였고 2007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1,965,977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를 보면 1997년 3388.3에서 2007년 현재 3,987.7로 약 17.7% 증가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크다. 성폭력범죄는 1997년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0,000건을 넘어섰다. 2002년 9,43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7년 7,120건에서 2007년 13,482건으로 증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비는 1997년 15.1에서 2007년 27.2%로 83.4%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강간범죄의 증가율은 전체범죄에 비해 훨씬 높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자. 범죄분석을 통해 보면 강간범죄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말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 <표 2>에서 보듯이 인구 10만 명당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1980년 10.4, 1985년 13.4, 1990년 12.9, 1995년 10.9에 머물러 있다가 1999년 13.5, 2000년 14.6, 2002년 19.8, 2003년 21.3, 2004년 22.9, 2005년 24.1, 2006년 27.7, 2007년 27.7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

1) 물론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의 추이를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자주 거론이 된바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숨은 범죄가 많으므로 공식통계가 실제 범죄발생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법과 법집행의 선택성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강간범죄는 199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에 감소세를 보인후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말의 증가와 2000년대 초의 감소와 재증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낀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199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당시 외환위기로 시작해서 사회전역으로 퍼진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빈곤 등 사회구조적 압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설명은 아래의 4절 참조). 그리고 이것은 우리사회가 세계화의 영향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1999년 성폭력의 급증은 세계화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연 도	전체범죄		강간범죄	
	범죄건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범죄건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007	1,965,977	3987.7	13,482	27.7
2006	1,829,211	3733.7	13,573	27.7
2005	1,893,896	3882.3	11,757	24.1
2004	2,080,901	4283.1	11,105	22.9
2003	2,004,329	4142.3	10,365	21.4
2002	1,997,665	4100.5	9,435	19.6
2001	1,985,980	4135.6	10,495	21.8
2000	1,867,882	3893.3	10,189	21.1
1999	1,732,522	3,660.1	8,830	18.6
1998	1,765,887	3,757.9	7,886	16.7
1997	1,588,613	3,383.3	7,120	15.1
1996	1,494,846	3,219.3	5,688	12.2
1995	1,399,085	3,108.6	6,174	13.8
1994	1,375,564	3,056.3	6,169	13.7
1993	1,359,094	3,123.0	7,051	16.0
1992	1,245,215	2,861.7	5,465	12.5
1991	1,233,383	2,990.0	5,175	12.0
1990	1,175,178	2741.3	5,519	12.9
1985	814,801	1996.8	5,453	13.4
1980	603,779	1583.7	3,977	10.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1, 1986, 1991-2008).

1995년 자료는 최인섭 외 1997 참조

1997-2007 성폭력범죄율은 여성가족부 2008 성폭력범죄의 실태조사 참조.³⁾

2) 참고로 서베이 조사자료를 보면 1989년에는 조사대상자 2254명(여성) 중 22명, 1996년에는 조사대상자 1500명(여성) 중 21명, 2007년에는 조사대상자 6880명(여성) 중 1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피해자수를 보면 각각 976, 1400, 218로 나타난다. 심영희 외 1989, 최인섭 외 1997, 김은경 외 2008 참조.

다음으로 상담현황에 나타난 자료를 보자.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은 1998, 1999년에 급증한 모습을 보인다. 1997년에 1,647건이던 것이 1998년에는 2,085건, 1999년에는 2,564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한 2001, 2002, 2003년에도 급증한 모습을 보이는데 2000년에는 2,309건으로 감소했던 성폭력 상담이 2001년에는 2,869건으로 증가해서, 2002년에는 2,961건, 2003년에는 2,839건으로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2,362건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상담현황

연 도	상담회수	상담건수	성폭력상담건수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총	56,769	37,699	30,450 (80.8)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폭력상담소 통계담당자는 “1998년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사건 상담 의뢰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 여성 우선 해고 조치가 당연한 듯 자행되면서 피해자가

- 3) 1997-2001년의 성폭력범죄통계는 범죄분석에 의한 강간범죄율과 여성가족부 2008의 성폭력 범죄물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후자의 경우 1994년 1월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도 포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나 문제제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부당한 성적요구나 접근, 이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해고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들도 생계를 위해 영업판매직, 서비스직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고용 또는 고객유차실적유치 등을 미끼로 성적인 폭행과 희롱이 증가되고 있음도 보고하고 있다. 1997년도 216건(강간 114건, 성추행 102건)에 비해 98년도에는 304건(강간 153건, 성추행 15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이는 “IMF형 직장 내 성폭력”이 있었음을 제시한다.

2.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추세: 90년대 말, 2000년대 말 증가

그러면 성폭력 범죄 중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성폭력 범죄의 발생량은 알기 어렵지만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를 알기는 더더욱 어렵다. 많은 경우 신고되지 않아 숨은 피해가 많은 뿐 아니라 신고되더라도 공식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를 통계자료, 상담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공식통계인 범죄분석을 중심으로 양적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합한 20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의 수는 1997년 3097명에서 2000년 40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2년에는 2481건으로 까지 떨어졌다가 2003년에 잠시 증가한 뒤 2004년에 다시 감소했다가 2005년에 3598명, 2006년에 4085명, 2007년에 4193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율은 1997년 대비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이 우리사회가 경제 위기를 맞은 해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범죄분석에 나타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30세 이하 즉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세 이하, 즉 10대이며, 세 번째로는 40세 이하, 즉 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비교하여 보면 10대의 비율과 40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20대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세 이하 피해자를 범주별로 보다 자세히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12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자의 비율은 1998년, 2000년, 2002-2003년, 2006-2007년에 증가하였고, 15세 이하의 어린이 피해자의 비율은 1997년에 높았다가 2001년부터 급감한 뒤 2003년, 2005-2007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세 이하의 청소년피해자의 비율은 1997, 8, 9년에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니, 그 가운데서도 2003년, 200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각 연령집단별로 보아도 1990년대 말에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구성비가 공통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 (1997-2006) (공식통계)

연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7-15세 이하 합	20세 이하	20세 이하 합계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계
1997	2.4	5.7	10.8	16.5	24.6	3,097 (43.5)	26.4	22.0	8.5	2.1	1.2	7,120 (100.0)
1998	2.6	6.7	9.0	15.7	25.3	3,438 (43.6)	25.9	19.2	8.2	2.2	1.0	7,886 100.0
1999	2.3	5.7	8.3	14.0	26.6	3,788 (42.9)	27.3	16.9	8.8	2.6	1.5	8,830 100.0
2000	2.0	6.6	8.5	15.1	23.1	4,096 (40.2)	27.8	18.7	9.7	2.2	1.4	10,189 100.0
2001	1.5	5.2	4.6	9.6	19.9	3,274 (31.2)	34.9	19.9	9.3	2.7	1.5	10,495 100.0
2002	1.6	7.5	2.7	10.2	14.5	2,481 (26.3)	33.9	18.1	10.4	2.5	1.8	9,435 100.0
2003	2.0	6.6	4.3	10.9	16.2	3,016 (29.1)	37.0	18.9	11.1	2.6	1.4	10,365 100.0
2004	1.2	5.0	3.0	8.0	13.3	2,499 (22.5)	43.2	17.6	11.5	2.9	1.6	11,105 100.0
2005	1.7	5.0	4.5	9.5	19.4	3,598 (30.6)	38.1	14.2	11.2	2.7	2.0	11,757 100.0
2006	170 1.3	762 5.8	733 5.6	11.4	2280 17.4	4,085 (30.1)	5023 38.3	1759 13.4	1535 11.7	420 3.2	1.7	13,573 100.0
2007	159 1.2	883 6.6	690 5.1	11.7	2435 18.2	4,193 (31.1)	5149 38.4	1762 13.1	1579 11.8	485 3.6	273 2.0	13,482 100.0

자료: 범죄분석, 여성가족부, 2007, 재구성.

*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범죄분석의 구분대로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의 범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서베이 자료를 살펴보자. 성폭력 피해조사는 1989년, 1996년에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에 의해, 2007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모두 3차례 실시되었다⁴⁾. 그중 1996년 서베이 보고서에서는 과거의 성폭력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회고적 방법에 의해 첫 성폭력 경험과 과거의 성폭력 경험을 물어본 1989년과 2007년 자료를 비교해보겠다.

〈표 5〉연령대별 어린이 성폭력피해 (서베이 조사자료)

연도	구 분	10세 미만	10-15세 미만	15-20세 미만	20-25세 미만	25-30세 미만	30대 이상	합 계
1989	심한추행		46 (8.8)*	172 (33.0)	259 (49.6)	28 (5.4)	17 (3.3)	522 (100.0)
1989	강간미수		24 (7.8)*	121 (39.4)	137 (44.6)	18 (5.9)	7 (2.3)	307 (100.0)
1989	강간		19 (11.8)*	66 (41.0)	61 (37.9)	15 (9.3)		161 (100.0)
2007	강간 유사성교***	18 (21.4)	31 (36.9)	19 (22.6)	11 (13.1)**		5 (5.9)	84 (100.0)

1989 자료: 심영희 외 199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자료: 여성가족부 2008 〈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1989년에는 10세 미만의 범주가 없었고 10-15세 미만은 15세 미만을 모두 포함.

** 2007년에는 20-25세 미만, 25-30세 미만 범주가 20대로 하나로 묶여 있음. 따라서 이 수치는 20대 전체에 해당됨.

*** 2007년의 강간 유사성교에는 강제추행이 포함되지 않음. 강제추행 피해경험자는 70명으로 조사되었음.

〈표 5〉에서 보듯이 첫 성폭력 경험시 연령을 물어본 결과 20세 미만 어린이 성폭력은 1989년에 강간미수가 48.2%, 강간이 52.8%로서 약 50%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15세 미만의 비율도 강간미수 7.8%, 강간 11.8%로 나타났다. 또 2007년에는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세 미만의 피해자 비율이 80.9%, 15세 미만의 비율이 58.3%, 10세 미만의 비율이 21.4%로 높게 나타났다. 2007년도의 20세 미만 피해자 비율 80.9%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비율 31.1%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공식통계와 서베이 자료의 차이는 여러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숨어 있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공식통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신고를 잘 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연령 등의 문제로 처리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숨어 있는 어린이 성폭력피해비율이 1989년에도 이미

4) 1989년 자료는 심영희 외 1989, 1996년 자료는 최인섭 외 1997, 2007년 자료는 여성가족부 2008 참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성폭력 피해가 오래전부터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린이 성폭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지되지 않았거나 부각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서베이 자료 1989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1989년에는 20-24세의 피해비율이 40%대로 가장 높았지만 2007년에는 10-15세 미만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의 비율도 2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를 위해 다음으로 상담자료를 살펴보자. 상담자료는 상담은 받되 신고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 즉 숨은 성폭력과 공식통계 사이의 중간단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는 2000년 이후만 있어서 그 전의 것은 알기 어려우므로 2000년 이후만을 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유아에 대한 성폭력의 구성비는 2001년 8.5%, 2003년 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린이 성폭력의 구성비는 2000년 13.0% 부터 2002년 14.9%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 12.2%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 12.3%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성폭력피해의 구성비 역시 2000년 17.4%부터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3-4년에 15.1%, 13.5%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 16.2%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6>성폭력의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상담자료)

연령별 성 별	성 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 아 (7세 이하)	미 상	계	남	총 계
2006 여	1,443 (62.3)	347 (15.0)	286 (12.3)	146 (6.3)	33 (1.4)	2,255 (97.3)	59 (2.5)	2317 (100)
2005 여	1,368 (63.6)	349 (16.2)	202 (9.4)	111 (5.2)	32 (1.5)	2,062 (95.9)	86 (0.1)	2,151
2004 여	1,497 (63.4)	322 (13.5)	253 (10.7)	149 (6.3)	45 (2)	2,266 (95.9)	84 (3.7)	2362
2003 여	1698 (59.8)	429 (15.1)	346 (12.2)	227 (8.0)	42 (1.5)	2742 (96.6)	90 (3.2)	2,839
2002 여	1,617 (54.6)	552 (18.7)	442 (14.9)	202 (6.8)	67 (2.3)	2,880 (97.3)	80 (2.7)	2,961
2001	1,632 (59.8)	494 (17.2)	377 (13.1)	245 (8.5)	121 (4.2)	2869 (100.0)	-	
2000	1,330 (57.6)	402 (17.4)	299 (13.0)	140 (6.1)	138 (6.0)	2309 (100.0)	-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상담자료를 제시하면서 1997년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학령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을 특기하고 있다. 또 2001년에도 어린이, 유아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어린이, 유아피해가 2001년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증가),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로서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과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향상을 들고 있다. 2003년에는 어린이성폭력 상담건수는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 602건(21.2%), 2002년 672건(22.7%)) 2003년은 여느 해보다 어린이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 해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2003년 5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거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음을 들고 있다.

비교를 위해 다음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보자. 언론보도 자료의 의미는 이것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어린이성폭력”을 치고 검색이 가능한 최초일인 1990년 1월1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의 뉴스를 검색해본 결과 모두 1,1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시기별 변화를 보기 위해 다시 이를 각 연도별로 검색해본 결과 다음 <표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7> “어린이성폭력”으로 KINDS 검색한 결과 (언론보도 자료)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수	1	11	33	24	14	28	75	31	19	32	41	53	60	79	99	56	145	95	221

<표 6>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에 1건의 보도가 있는 후 1991, 92년도에 어린이 성폭력기사가 11건, 33건으로 급증했고 1996년 (75건)에 또한 급증했으며 2000년대 이후 특히 2003년과 2004년 (79건, 99건)에 급증추세를 보이고 2006년과 2008년에 (145건, 225건) 다시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4>, <표 5>, <표 6>, <표 7>에 나타난 네 가지 자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식통계자료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이나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시절의 어린이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기사자료는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식통계자료와 신문기사자료는 빈도수에 있어서는 둘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공식통계자료는 90년대말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에 약간의 증가만을 보이는 반면, 신문기사자료는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상담자료는 자료들이 부족하지만 공식통계와 비슷하게 2000년대 후반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구성비의 변화를 볼 때 공식통계에서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말에는 20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 구성비가 높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신문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1992년, 1996년과 2004년, 2006년, 2008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 8, 9년의 경우 공식통계와 신문기사자료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시기 공식통계는 높은 구성비를 보이거나 신문기사자료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이 자료들은 이런 차이를 보일까? 이 차이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신문기사는 언론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식통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식통계도 신고나 인지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문기사에 비하면 보다는 덜 그러하다. 반면에 신문기사는 심각도나 후유증에 있어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대해 많은 기사가 등장한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공식통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나 신문기사에서는 여러 신문에서 기사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신문에서도 여러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문기사의 수는 공식통계보다 사회적 관심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증가는 얼마나 심각하고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났느냐와 얼마나 사회적 관심이 큰가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느냐 보다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둘째, 언론보도의 증가가 실제 성폭력의 증가나 통계의 증가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현상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즉 문제나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현실상황보다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 성폭력은 1990년대 말에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나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서 어린이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식통계는 많았으나 신문기사는 적었던 이유는 왜일까? 또는 공식통계는 적었으나 신문기사는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지구화의 두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 공식통계의 추세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실제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증가 사이의 차이

이 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를 보기 위해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 응답자료, 신문기사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첫째, 공식통계자료는 (응답자료도 유사한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인다. 둘째,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시절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문기사자료는 공식통계자료보다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차이는 여러 가지를 말해준다. 우선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의 차이를 보면, 첫째, 숨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공식통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신고를 잘 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연령 등의 문제로 처리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숨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비율이 1989년에도 이미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오래전부터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지되지 않았거나 부각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서베이 자료 1989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1989년에는 20-24세의 피해비율이 40%대로 가장 높았지만 2007년에는 10-15세 미만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세 미만의 비율도 2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식통계와 언론보도자료의 차이를 보면 공식통계에서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말에는 20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 구성비가 높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신문기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기사가 전반적으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1992년, 1996년과 2004년, 2006년, 2008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7, 8, 9년의 경우 공식통계와 신문기사자료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이 시기 공식통계는 높은 구성비를 보이거나 신문기사자료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통계와 언론보도자료에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신문기사는 언론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식통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기사는 심각도나 후유증에 있어서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대해 많은 기사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언론보도의 증가가 실제 성폭력의 증가나 통계의 증가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현상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즉 문제나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관점은 아직 형성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은 1990년대 말에 비교적 많이 발생했으나 당시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와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식통계와 서베이 자료의 추세, 특히 후자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유형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유형변화는 자료의 한계상 공식통계를 통해서는 살펴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서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 “어린이성폭력”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는 위의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이를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사례들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그 중 일부 사례들을 선정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선정기준은 그 시기에 가장 센세이셔널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이후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대표적인 사례들로 간주하여 선정하였다. 시기별 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기별 특징과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그려보고자 한다. 유형변화를 보는 틀은 위의 〈표 1〉에서 제시한 유형을 따르기로 한다.

1. 1990년대 초반: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등장

1990년대 초반에는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는데 그 중 센세이셔널한 사건은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 사건이었다.

1) 김부남 사건 (1991)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린이 성폭력 문제가 부각된 것은 김부남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고 묻힌 채 지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1991년 1월 어린이 성폭력으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결혼생활에도 실패했던 김부남씨(당시 30세)가 21년 전(1970년)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서 비상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경향신문, 1991. 8. 18). 이 사건이 이처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같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한 본보기였을 뿐 아니라 김씨의 보복살인행위가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녀가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란 최후진술은 김씨가 9살의 어린 나이로 항거불능상태에서 당한 성폭행으로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또 21년 동안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두 번이나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등 파멸적 인생을 보낸 여인의 한이 응축된 한마디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어린이 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의 어린이 성폭력 유형은 위에서 논의한 유형 3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김보은 사건

또한 1992년에는 오랫동안 의부에게 성폭력을 당해온 김보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도 어린이 성폭력의 후유증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어린시절의 성폭력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수년간 오래 지속되었고 그것도 비록 의붓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가족에 의해 저질러졌다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어머니가 이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3) 기타 사건

그 이후 여러 가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보고되고 기사화되었다. 특히 92년-94년 기간동안 친족, 교사, 보육시설 원장, 목사, 승려 등에 의한 다양한 어린이 성폭력이 기사화되었다. (한겨레, 1996. 7. 11.)

- △ 92년 3월=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사는 초등학교 3년생 여자어린이가 삼촌과 당숙에게 성폭행당해 오다 하교길에 실종.
- △ 92년 6월=충북 청주시 사직동 구 용화사승려 김종호(53)씨가 7살, 6살, 5살 여자어린이를 잇따라 강간한 혐의로 구속.
- △ 92년 7월=전북 부안군에 사는 최삼렬(53)씨가 12살 난 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구속.
- △ 92년 7월=전 청주 성화원 원장 이경훈(70)씨가 아동보육시설 여자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형 선고.
- △ 93년 4월=서울 관악구 신림5동 김환동직업안내소 이종호(30) 사무장이 초등학교 6년생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 △ 93년 5월=여자 초등학교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구속된 정석범(22·경기도 부천시)씨가 어린이 혀 절단사건 범인으로 밝혀짐.

- △ 94년 1월=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 암장한 박 아무개(16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군이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
- △ 94년 4월=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성아무개(48) 교사 구속.
- △ 94년 5월=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여자어린이를 유괴해 성추행한 뒤 숨지게 한 전 석재(30 · 울산시 중구 유곡동)씨 구속.
- △ 94년 5월=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한 초등학교 김지송(54) 교감 구속.
- △ 94년 6월=자신이 학장으로 있는 어린이선교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부산 금정구 목양선교회 최일홍(48) 목사 구속

이들 사례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을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90년대 초반 사례들의 가해자 피해자 연령

사례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피해자연령	9	7,6,5	12	10?	12	10?	10?	10?	10?	10?	10?
피해자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가해자연령	30~40대?	53	53	70	30	22	16	48	30	54	48

위의 <표 8>에서 보듯이 11개의 사례들 중 가해자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매우 다양하나 피해자의 연령은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여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에 의한 한 사례 외에는 모두 유형 3, 즉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2. 1990년대 후반: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의 확산

1990년대 후반 역시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주요 관심사였는데 이 시기에 센세이셔널 했던 어린이 성폭력 사건은 1996년 유치원장 성추행사건(1996)과 아산 마을 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사건 (1996)이다.

1) 유치원장 성추행사건(1996)

△ 96년 6월=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이 10여명의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며 학부모들이 항의(한겨레 1996. 7.11.).

2)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사건 (1996)

△ 96년 7월=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어린이를 마을주민 14명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극약을 마심으로써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한겨레, 1996. 7. 11.).

위의 사례는 한 사람이 여러 어린이를 성추행 했거나 여러 사람이 한명의 어린이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성인이 어린이를 성추행 또는 성폭행 했다는 점에서 유형 3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사건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었다(한겨레 1996. 7. 11.).

△ 95년 2월=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집을 보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전경 유상진(21 · 서울 성동구 금호4가)씨 구속.

△ 95년 4월=초등학교 6년생 여자어린이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일아파트에서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자를 피하려다 떨어져 중태.

△ 95년 12월=유아무개(37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어린이축구단 코치가 초등학교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 구속.

△ 96년 3월=네살짜리 여자어린이를 추행한 뒤 우물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함아무개(17 · 경북 상주시 함창읍)군 구속.

△ 96년 4월=서울 수서주공아파트 1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1 · 4년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해온 이명철(28 · 서울 강남구 자곡동)씨 구속.

위의 사례들을 가해자 피해자의 연령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000년대 초반 사례들의 가해자 피해자 연령

사례번호	1	2	3	4	5
피해자연령	10	12	10	4	7, 10
피해자성별	여	여	남	여	여
가해자연령	21	30대	37	17	28

이 사례들도 한 사례 외에는 모두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으로서 유형 3에 해당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남아에 대한 성추행이 처음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아에 대한 성추행이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3. 2000년대 초: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의 등장

2000년대 초에도 보육원생 상습 성폭행 사건⁵⁾(2001) 등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 사례들이 계속 보도되었으나, 새로운 추세는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의 등장이었다. 특히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2004) 등이 센세이셔널한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1)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

이중 가장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 한 사건은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다(내일신문, 2004. 12. 27.).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41명의 고교생이 5명의 여중·고생을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으로서 사건 그 자체로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동영상 공개 협박 등으로 여중생 자매 등을 집단으로 농락했다고 한다. 더구나 일부 가해자 학부모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신고하고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 하라”며 협박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04. 12. 13.).^{6) 7)}

5) 보육원생 상습 性폭행사건은 2001년에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선교원직원 등이 보육시설에 수용된 여자 어린이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B선교원 전 사무보조원 서모(47)씨 등 2명과 선교원 보육담당 집사 이모(43)씨 등으로 모두 40대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998년 4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선교원 안에서 원생 A(14)양 등 2명을 주먹과 각목으로 때린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한다(세계일보, 2001. 06. 27.).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 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부산에서 9~10세의 초등학교 3~4학년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12)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또 터져 충격을 준 바 있고, 2003년에는 서울 도봉구 한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내일신문, 2004. 12. 27.).

2) 어린이/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 발생

2002년 1월 초 한겨레신문은 “인터넷 사이트 비디오 음란물 홍수/어린이 성폭력 위험수위”라는 기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 문제를 처음 다루었다. 이 신문에서 예를 든 사례는 초등학생들 사이의 성폭력으로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한 사례를 들면 200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최소라(12.가명)양은 같은 반 남자 짝꿍이 수업 도중 자꾸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말 못할 고통을 받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최양의 어머니는 이군 부모에게 항의했고, 이군은 전문상담소를 찾았다고 한다(한겨레 2002. 1. 10.).

다른 사례를 들면 2001년 가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13)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웃집 여자 어린이(9)를 학교 화장실에서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

6) 이러한 사건이 피해자에게 준 영향은 너무나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1년이 지난 뒤 2005년 11월 22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2005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지난 1년은 너무나 참혹한 고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학생은 사건 후 전학을 원했으나 교육행정 담당기관에서는 결석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전학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석은 정기 정신치유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한다.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왜 못사람의 시선을 피해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가도 문제다. 그 여학생은 어린 나이에 10분마다 자살을 생각했다고 하며, 이 여학생을 돌봐온 상담전문가에 따르면 삶의 희망과 의지를 완전히 잃어 자포자기 상태라고 한다. 가정에서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의 폭력과 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는 쫓아지는 냉대와 편견 때문에 끝내 학업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서울신문, 2005. 11. 23.).

7)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성폭력 수사방식의 문제였다. 피해 여학생들이 보복공포와 수치심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에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해학생 중 3명만 구속시키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9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여경에 의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목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경찰관은 피해자들만 있던 방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놔다”는 등의 폭언까지 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성폭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직접 찍어내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이 보복경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04. 12. 13.).

어린이는 “싫다고 했지만 오빠가 무서워 시키는대로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한겨레 2002. 1. 10.). 또 다른 사례는 남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이다. 김성혁(11.가명)군은 2001년 봄,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선배 3명한테 학교 옥상으로 끌려가 바지를 벗긴 채 성추행을 당했다. 또 박승철(9.가명)군은 같은 반 여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해 여자 어린이를 놀라게 했는데, 3년 전 유치원에서 비슷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한겨레 2002. 1. 10.).

이런 사례들은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전 유형과 다른 새로운 추세이며, 이는 앞의 <표 1>의 유형4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2004년 3월 25일자도 또한 성폭력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등 성폭력 사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가해자가 저연령화된다는 것은 피해자 또한 저연령화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린이간 성폭력의 증가를 보여준다. 2003년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접수된 953건의 성폭력 피해 상담 통계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비율은 5.7%(68건)로 2001년 418건 가운데 3.3%(14건), 2002년 745건 가운데 4%(30건)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4. 03. 25.). 피해자의 경우에도 만 13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2002년 745건 가운데 24.4%(182건)에서 2003년 953건 가운데 25.7%(245건)로 늘어났고, 만 7세 이하 피해자는 2002년 65건에서 2003년 83건으로, 8~13세 이하 피해자는 2002년 117건에서 2003년 16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국민일보, 2004. 03. 25.).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성문화 접촉이 쉬워지면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모두 조금씩 낮아진 셈이다.

4. 2000년대 후반: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 및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의 확산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들이 모두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가장 센세이셔널 했던 사건은 혜진 예술양 납치 성폭행

사건과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어린이/청소년 간 성폭력이 확산되기도 했다.

1) 혜진 예술양 납치 성폭행 사건 (2008)

2008년에는 혜진, 예술양 사건이라는 어린이 납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역시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혜진(10세, 초등 4년), 우예슬(8세, 초등 2년)양은 2007년 12월 25일 오후 3시3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우양파크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졌다. 이어 두 어린이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앞 야외공연장을 지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으며, 오후 5시쯤 문예회관 인근 상가주인에게 목격된 이후 실종됐다. 그후 2008년 3월 11일 이혜진 양은 수원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되었다(세계일보, 2008. 3. 14.). 우예슬 양 역시 실종 3달 만에 안양천에서 토막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범인은 불과 130미터 떨어진 이웃에 살던 정모씨(39세)라는 사람으로 밝혀졌다(세계일보, 2008. 3. 18.).

이 사건들은 성인 가해자가 청소년이나 어린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로서 유형 3에 해당한다.

2)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사건 (2008)

대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역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이 학교에서는 2006년 1학기부터 거의 2년간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 갖가지 성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상담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가해·피해 학생의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2008. 04. 30).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간 집단 성폭력 행위가,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저질러져온 것이었다. 특히 성폭력은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도 여러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사건은 2008년 4월 21일 오후 5시쯤 문제의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한 중학교 교정의 외진 잔디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세계일보, 2008. 5. 2.), 보도에 의하면 중학생과 초등교 6학년생들의 지시를 받은 후배 초교생들이 귀갓길 여학생들에게 ‘놀러 가자’며 교정 외진 곳으로 유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중학생과 초등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여학생들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들을 위협, 성폭력을 강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세계일보, 2008. 5. 2.).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흥내내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에서 이런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또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위협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놀이를 하는 도중에 성폭력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한겨레, 2008. 4. 30.).⁸⁾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어린이인 경우로서 유형 4에 해당한다. 이제 성인 가해자가 어린이/청소년피해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외에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다.

3)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확산

그 외에도 어린이/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들이 확산되어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보도되었다.

사례 1: 2007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5)양은 같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B(11)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 A양 어머니가 B군 부모에게 항의하자 “미안하다. 아이들 장난인데 뭘 그리냐.”며 아들을 야단치는 것으로 끝났다. B군은 이날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본 뒤 밖으로 나왔다

8) 초등학생들의 집단 성폭력 그 자체 못지않게 충격적인 것은 교육 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처였다. 해당 학교와 대구시 교육청은 2007년 11월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다섯 달 동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체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감춰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그쳤고, 교사들에게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도록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사들이 피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영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보내 상담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나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나서지 않았다. 또 보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도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감춰왔다고 한다(한겨레, 2008. 4. 30.).

가 성추행을 했다. 결국 A양 가족은 B군을 피해 이사를 가야 했다(서울신문, 2007. 4. 11.).

사례 2: 2007년 2월 C(5)양은 설날 가족모임에서 사촌오빠인 D(11)군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C양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딸의 성기에 산부인과적 염증이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C양의 어머니는 “D군이 성추행을 하며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너희 엄마와 우리 엄마가 싸운다며 겁을 줬다더라. 제사도 명절도 끔찍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서울신문, 2007. 4. 11.).

위의 사례 1과 2에서 보듯이 가해자는 11세, 피해자는 5세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07년 4월 10일 성폭력 아동 전문상담소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상담했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성폭력 가해자 645명 가운데 만 7세 이하가 58명(8%), 8~14세 미만이 101명(16%)에 달했다.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12~14세가 포함된 통계이지만 어린이·유아 성폭력 가해자들의 심각성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12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데다 가해자 부모는 물론 피해자 측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서울신문, 2007. 4. 11.).

5. 소결: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서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으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에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표 1>에서 제시한 유형을 중심으로 최근 20년간을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부각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슈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슈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이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를 게재한 로리타 사이트 등 아동 포르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00년대 후반에는 혜진 예술양 납치 성폭력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와 1990년 후반까지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간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표 10>은 주요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성폭력 유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은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고 청소년범죄가 주요 문제였던 때였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이다.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1980년에는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때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때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아직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았다.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은 최근으로 올수록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저연령화의 원인으로서 음란물의 범람이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시기별 변화

구 분	성인에 의한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간 성폭력	어린이간 성폭력
1990년대 초	1991 김부남사건 1992 김보은 사건		
1990년대 후반	1996 유치원장 성추행사건 1996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2000년대 초		2004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2000년대 후반	혜진 예술 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이러한 유형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인식의 지체현상이다. 즉 김부남, 김보은 사건등에서 나타나듯이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은 1970년대, 1980년대에도 등 199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 와서 비로소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현상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어린이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을 어린이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남자아이의 고추를 만지는 행동은 전에는 성폭력으로 인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아이스케키”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애들 장난”으로 간주되던 행위들이 어린이간 성폭력으로 인지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위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양적 추세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양적 증가와 유형변화는 왜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V. 어린이 성폭력 증가의 배경과 맥락

위의 양적 증가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성폭력 전반과 어린이 성폭력은 90년대 말에 증가했고 200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2000년대 이후에는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등장했고 사회적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90년대에 성폭력 전반과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에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으로의 유형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것을 경제위기라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포르노의 확산, 그리고 인권담론의 확산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경제위기와 성폭력의 증가: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일상의 권력

먼저 90년대 말과 2000년대 후반⁹⁾에 증가한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는

경제위기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이 지구화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의 여러 측면¹⁰⁾ 중 경제영역으로 보면, 크게 보아 지구화의 진행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시작되었고, 초국적기업의 증가, IMF, World Bank, WTO체제 등 국제적 조직체의 확립 및 이로 인한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국가가 무력화하고 IMF가 요구하는 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초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국가도 무력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노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돌진적 산업화로 풍요사회에 들어간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영희, 2006).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압력이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공식통계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전반과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증가한 시기인 1990년대 말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은 시기와 일치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은 시기가 1997년 말부터였고 이 시기에 성폭력 전반과 성인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성폭력 전반과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시대에 범죄와 청소

9) 2000년대 후반에 어린이 성폭력이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이것도 2008년에 다가온 금융위기와 관련시켜 설명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10) 그런데 이 경제위기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백 (2000)에 의하면 지구화의 양상은 1) 국민국가의 무력화, 국제적 조직체와 같은 새로운 정치 행위자의 대두, 2) 초국민적 기업의 등장, 생태파괴, 3)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상, 4) 초국민적 문화와 생활양식 등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지구화는 이전과는 다른 근대(제2의 근대)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지구화는 신자유주의, 즉 경제적 지구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과정이다. 즉 구조/제도의 측면과 의식/담론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상되면서 지구화는 사회와 공론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한 초국민적 문화와 생활양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평등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담론의 확산은 여성들에게 성찰성과 자아정체성을 증가시키고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는 세계적으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이고 특히 90년대 말 경제위기 때 그 징표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의 기준을 90년대 말로 잡고 접근해보려 한다(심영희, 2006).

년 범죄가 증가했다는 논의한 연구들도 지구화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심영희, 1998c, 1998d)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압력은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제시한 “일상의 권력이론”이 이의 작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즉 공식적 권력, 예컨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없으나 일상적 권력, 예컨대 가부장적 권력은 있는 자가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불만을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분출한다는 것이다(심영희, 1994, 1998b). 많은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예를 들면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직장이나 가정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지적과 연결될 수 있다¹¹⁾.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에 있던 동안 지구화로 인한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경쟁의 치열화로 실업이 증가하고 이는 여성에 대한 우선 해고, 성희롱 등 차별과 폭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적 권력”은 있으나 “공식적 권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심영희, 1994, 1998). 또한 IMF 경제위기 시대에 범죄와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다는 논의한 연구들도 지구화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즉 IMF 시대에 각종 범죄가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늘고 이로 인해 가족내에서 갈등이 증가하거나 가족해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불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로 분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심영희, 1998c; 심영희 1998d). 성인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에 증가한 많은 성폭력과 어린이 성폭력의 배경은 소수의 “이상한” 정신질환자 성폭력가해자들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있다기 보다 경제위기와 같은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하에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만의 표출

11) 이러한 예는 특히 1990년대 말에 증가한 성폭력 중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증가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0년 말 성폭력의 증가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담당자는 “1998년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사건 상담 의뢰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위의 3절 참조). 이는 “IMF형 직장내 성폭력”이 있었음을 제시하며, 성폭력 전반의 증가에 경제위기라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서 가부장적이고 일상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사회구조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포르노의 확산과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

위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유형이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서 어린이/청소년 간 성폭력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의 등장은 그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2000년대 초반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음란물의 범람을 지적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 이를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란물의 범람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음란물의 범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케이블 TV에서의 음란물 방송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동음란물¹²⁾ 사이트가 등장하고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한겨레 2003. 7. 25.).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로리타”¹³⁾라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였다. 미성년자들이 아동관련 음란물에 접근될 경우 강도 높은 도착성 때문에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식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2003. 7. 25.). 그런데 이런 아동 포르노 사이트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¹⁴⁾ 인터넷 뿐만 아니라 아동포르노 관련 비디오와 CD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보면 9살~12살 짜리

12) 아동포르노라 함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포르노를 일컫는다.

13) “로리타”(Lolita)는 ‘아동포르노’를 일컫는 은어로서, 원래는 러시아 출신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제목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성심리학과 성의학에서는 ‘어린 소녀에 대한 중년 남자의 성적 집착 혹은 성도착을 ‘로리타 신드롬’으로 부르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아동포르노’로 통하고 있다.

1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제 핫라인망을 통해 2002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국내에서 아동포르노가 발견된 사이트는 570개였다고 한다. 윤리위가 이들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할 것을 지시한 이후 2003년 6월 이들의 삭제 여부를 다시 모니터링한 결과 59개 커뮤니티에서 아동포르노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야한 동영상 등 성 관련 동영상과 정지영상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발견됐으며 회원이 3000명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 2003. 7. 25.)

아동포르노를 비디오와 CD를 판매하는 리스트들이 광고로 올라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음란물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2003년 음란물이 문제시되던 당시 중고생 113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60%, 남자 고등학생의 93.1%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음란물, 특히 폭력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평소에 성충동을 자주 느끼며 이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등 그릇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행도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성식, 2003). 또한 2004년 5월 한국통신문화재단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14.4%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고 이중 절반 이상(50.5%)이 ‘직접 해보고 싶은 호기심·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내일신문, 2004-12-27). 실제 2001년 7월부터 친구 2명과 함께 여동생 친구 조아무개(10)양을 세차레나 성폭행한 서울 C초등학교 5학년 문아무개(11)군은 경찰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며 여자 몸을 만지고 싶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털어냈다고 한다(한겨레 2002. 1. 10.). 대구의 한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케이블방송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케이블방송의 ‘음란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도 나왔다(세계일보, 2008-05-02).

그런데 이렇게 음란물이 광범하게 확산된 것은 왜인가? 그것은 지구화의 또 다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됨에 따라 초국민적 문화와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서구의 생활양식이 여과없이 방송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도 나타나게 되었다(심영희, 2006). 특히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사이버공간의 출현을 가져오고 이 역시 사이버공간에서 서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여과없이 전달했다. 음란물 사이트, 특히 “로리타 사이트”와 같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는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구화의 이러한 사회적 영향들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의 증가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

3. 인권담론의 증가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는 실제 증가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한 인식의 변화

를 통해 전에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그렇게 간주함으로써 나타난 증가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란 무엇이며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위에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의 2000년대 말에 올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의 증가는 이제 어린이 성폭력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변화는 첫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더 이상 “쉬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둘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변화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보자.

우선 첫째,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 더 이상 “쉬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자. 위의 서베이 자료에서 보듯이 어린이 성폭력이 전에도 (1989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증가했다는 것은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 대해 “쉬쉬”해 왔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주의의 발달과 함께 여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심영희, 1998), 이에 비해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지체현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기에는 여성주의 담론조차도 backlash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당시에는 크게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역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어린이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을 어린이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른들이 “고추 따먹자” 하면서 아이들의 “고추”를 만지는 것이 전에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임을 확인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성추행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아이스케키” 놀이도 마찬가지이다. “애들 장난”으로 간주되던 행위들이 어린이간 성폭력으로 인지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첫째는 출산률의 감소와 함께¹⁵⁾

집안에 어린이의 수가 줄면서 부모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부터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2000년 1.5, 2001년 1.3, 2002년 1.1, 2003년 1.2, 2004년 1.2), 아이를 하나만 낳아 최고로 키우려는 부모들이 늘었고 아이의 발전과 행복이 부모의 최대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부모에게 자녀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녀의 미래와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서 절대로 “쉬쉬”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의식도 서서히 확산되면서 성인의 입장이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학자, 상담원, 기자 등 전문가 집단들은 여성 성폭력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어린이 성폭력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이 어린이에게 주는 후유증에 대해 우려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체현상¹⁶⁾을 보이기는 하지만 언론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제고시켜 상담사건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 이후에 상담이 증가하고 2000년대 말에 언론보도가 증가한 것은 이처럼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15) <표> 조출산률, 합계출산률 1980,1985,1990-2003

단위: 여성 1000 명당, 여성1인당 출생아수

연 도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출산률		31.2	24.8	22.7	16.2	15.4	16.0	13.4	11.6	10.3	10.2	9.8
합계출산률	6.0	4.5	3.5	2.8	1.7	1.6	1.7	1.5	1.3	1.2	1.2	1.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16)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 성폭력에 대한 인식보다 뒤늦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논의했듯이 (심영희, 1998) 여성 성폭력의 증가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 소위 “가정파괴범죄”의 증가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1993년 성폭력 특별법이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는 서울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이 또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담론과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심영희, 1998a).
- 17) 이런 맥락에서 상담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7년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학령전 유아에 대한 성추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을 특징하고 있다. 또 2001년에도 어린이, 유아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어린이, 유아피해가 2001년 622건(어린이 377건, 유아 245건)으로 2000년 439건에 비해 약 30%(증가), 이처럼 어린이, 유아 피해 상담이 증가한 이유로서 2001년 유아 성추행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유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과 성추행에 대한 부모의 인식향상을 들고 있다. 2003년에는 어린이성폭력 상담건수는 2002년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3년 602건(21.2%), 2002년 672건(22.7%)) 2003년은 여느 해보다 어린이성폭력 사건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한 해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2003년 5월 어린이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거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셋째, 이처럼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부모,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사회적 인식이 증가한 배경요인은 우리사회가 풍요사회, 위험사회, 신자유주의 등 지구화를 거치면서 인권담론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성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 인권담론이 증가한 것은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국제기구와 국제담론의 발전, 국가인권기구의 설립(2001. 11.), 인권 관련 시민운동의 발전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게 되었고 이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와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인권관련 시민운동도 활발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에 비로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역시 지구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화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여성주의와 인권담론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을 통해 성찰성을 증대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상은 한편으로 서구의 생활양식, 가치 문화 등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주는 면이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남녀차별에 대한 각성, 남녀평등담론, 어린이 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담론의 확산 등 평등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담론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산시키는 면도 있다(심영희, 2006).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포르노와 폭력문화의 확산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사회에 평등과 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고 국제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많은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성찰성과 자아정체성을 증가시키고 즉 의식과 담론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성과 의식의 변화가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을 새로이 사회문제로 보게 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4. 소결: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인권담론의 증대

요약하면 어린이 성폭력 등의 증가와 유형변화는 지구화의 두 가지 결과 때문으로 돌려질 수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 등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포르노의 확산 등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라는 지구화의 영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실제 증가 때

문이고, 둘째는 지구화의 또다른 측면인 글로벌 스탠다드와 인권담론의 확산 등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상과 이로 인한 초국민적 문화와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성찰성이 증대되고 인식이 고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물론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에 틀림없다.

위에서 논의한 지구화의 두 가지 결과 중 문제적인 측면들은 주로 구조적 제도적 측면의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주로 의식/담론의 측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구화로 인한 초국민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상과 평등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담론의 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찰성과 자아정체성을 증가시키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을 새로이 바라보고 규정지음으로써 변화를 불러오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를 지구화의 틀을 가지고 접근해보려는 것으로서 지구화의 구조적 제도적 측면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이라는 의식/담론의 두 수준에서 논의하려고 했다. 자료로는 공식통계, 서베이 자료, 응답자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양적 추세와 관련해서는 공식통계와 서베이자료, 상담자료, 신문기사자료를 비교해보았다. 공식통계자료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에 증가추세를 보이나 서베이자료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과거 어린시절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피해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문기사자료는 한참 뒤인 2000년대 말에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증가와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식통계의 추세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어린이 성폭력의 추세를 의미하고 신문기사의 증가는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을

두 축으로 해서 제시한 유형을 중심으로 최근 20년간을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기별 주요 사건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성인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부각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슈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유치원 원장의 성추행 사건, 아산 마을주민의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슈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력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해진 예술양 납치 성폭력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었고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대 초와 1990년 후반까지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어린이/청소년 간의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의 어린이/청소년 성폭력과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모두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의 증가 또는 유형변화의 맥락과 관련해서는 지구화의 두 측면 즉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지구화로 인한 글로벌 스탠다드 및 인권 담론의 확산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990년대 말에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의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고 2000년대 초와 후반에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증가한 것은 지구화로 인한 포르노의 범람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담론의 확산으로 인한 성찰성의 증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지구화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으로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구화이고 또 하나는 지식과 의식에 의해 생산되는 인식과 담론으로서의 지구화이다. 1990년대말의 성폭력과 성인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의 증가가 대체로 전자, 즉 경제위기라는 지구화의 압력에 후자, 즉 인권담론으로 인한 인식의 전환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2000년대 이후에 어린이/청소년간 성폭력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포르노의 확산이라는 지구화의 위협에 어린이의 권리라는 인권담론의 확산이 보태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지구화의 압력으로 인해 어린이/성폭력 현상이 실제로 증가하고 다른 편으로는 의식의 변화로 이런 문제에 보다 민감해지고 위험 인식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전에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간주하게 됨으로써 증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 성폭력의 양과 유형은 어떤 방향의 추세를 보일 것인가? 지구화의 맥락이라는 위의 논의의 연속선에서 보면 한편으로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과 다른 편으로 인권담론 및 성찰성의 증대로 어린이/청소년 성폭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고, 저연령화도 지속될 것 같다. 또한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남자어린이에 대한 성폭력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이 어린이 성폭력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우리는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지구화의 구조적 압력들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의 복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찰적 근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Beck, 1992). 특히 우리는 양성 사이에 민주주의와 평등을 제도화해야 하며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회경제적 참여, 가족, 성의 영역에서 가부장제 제도를 변화시키고 양성평등과 인권의 기반을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유형의 지구화, 즉 지식과 의식에 의해 생산되는 인식으로서의 지구화의 경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확산되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식의 변화로 이런 문제에 보다 민감해지고 위험인식수준이 높아지면 전에는 성폭력으로 간주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간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선 도덕교육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에 기반한 교육, 문화, 언어를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윤리 또는 도덕교육의 방향은 예컨대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담론을 개발하고 배제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단순히 성찰성을 증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공포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와 그 피해자들에게 보다 민감하고 적극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 특히 이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담론을 공론영역에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영향을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백, 올리히 2000 지구화의 길, 조만영 옮김, 거름.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심영희 외 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1990 “숨은 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_____ 1994 “일상생활과 권력: 직장,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12호.
- _____ 1998a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 _____ 1998b “어린이 성폭력,”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 _____ 1998c “IMF시대 범죄문제와 대책,” 범죄방지포럼 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 _____ 1998d “IMF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청소년학연구 5권 3호
- _____ 2006 “세계화와 한국 여성안보의 현황,” 젠더와사회 5권.
- _____ 2007 세계화와 여성안보, 한울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2008 〈2007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 이성식 2003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와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외 1997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1996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여성개발원 1996, 2007 여성통계연보.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위험사회론, 홍성태 역, 새물결.
- Shim, Young-Hee 2004 Sexual Violence and Feminism in Korea, Hanyang University Press.

Change of Child Molestation: From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him, Young-Hee *

This article is aimed to approach the issue of child moles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 More specifically, it asks how much child molestation has occurred and changed, which types of child molestation emerged when, and how they have changed during the recent 20 years in Korea. And it approaches the issues from the two levels of globalization, that is, the structural aspects and discourse aspects of globalization.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ncludes official statistics, survey data, counseling data, and news article dat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trends of child molestation, the four data show contradictory trends: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child molestation increased in the late 1990's and late 2000's; however, survey data show that child molestation already occurred a lot even in 1989; and news article data show that child molestation articles increased in the late 2000's. These differences were explained as real increase due to the structural pressures of glob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as change of social perception due to globalization on the other. That is, the trends of official statistics and survey data (especially the latter) show the trends of child molestation due to structural pressures of globalization, while the increase of news articles show the increase in social interests and social perception in child molestation.

Second, with regard to the change in the types of child molestation, it turned out that while child molestation by the adults emerged as social problem during the early and late 1990's, sexual violence among children/juvenile emerged as social problem during the early 2000's, and both types received social atten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Hanyang University, Ph.D. in Sociology

during the late 2000's.

Third, with regard to the context of such changes of child molestation, I tried to explain it with structural pressures of glob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dispers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and increase in reflexivity on the other. More specifically, I tried to explain the increase of child molestation during the late 1990's in terms of economic crisis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of economy, and the increase of sexual violence among children/juveniles during the 2000's with the dispersion of pornography which is related with the transnational communication due to globalization. In addition, I also argued that the increasing reflexivity and the dispers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due to globalization also contributed to these.

❖ Keywords : Child molestation, Collective sexual violence, Globalization,
Economic crisis, Pornography, Human rights discourse,
Reflexivity